지붕 위의 삼장 법사, 잡상

경복궁 잡상

잡상 만들기
난이도 ●○○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궁궐의 지붕을 보면 기와뿐만 아니라 동물 모양의 조각상이 있어요. 이 동물 조각상들은 조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와처럼 구워서 만든 장식 기와로, '잡상'이라고 해요. 궁궐에 불이 나지 않도록 <서유기>의 등장인물들이 지붕 위에 앉아 지키고 있는 셈이지요. 우리도 집을 지키는 잡상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해요

준비물

- 찰흙, 흙물
- 찰흙 주걱
- 스펀지나 젖은 수건

흙물이 없을 때는?
작은 통에 물을 조금 넣은 다음, 찰흙이 풀어지도록 으깨서 사용해요.

1

2

3

4

5

완성!

1 찰흙을 빚기 전에 흙물 미리 만들기
2 찰흙을 알맞게 떼어 두 손으로 살살 굴리기
3 잡상의 머리, 몸통, 팔다리 모양을 빚고, 접착 면에 흙물을 발라 연결하기
4 잡상 모양으로 세부 묘사하고 다듬기
5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기

잠깐만!
접착 면을 찰흙 주걱으로 긁은 다음 흙물을 발라 붙이면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요

국어 교과서 속 이야기 탐색

잡상, 어처구니가 없네?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중에는 '궁궐의 잡상 또는 맷돌의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도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특히, '잡상=어처구니'라고 하는 글에서는 '궁궐을 지을 때 지붕에 어처구니를 깜박 잊고 올리지 않을 만큼 어이없는 상황'을 손잡이가 없는 맷돌에 빗대어 '어처구니없다'라고 한다고 설명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것은 서로 관련이 없는 잘못된 정보예요.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보면 맷돌의 손잡이는 '맷손'이라 하고, 어처구니는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사물'이라고 뜻풀이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궁궐의 지붕 위에 여러 가지 동물상을 얹는 장식 기와'를 '어처구니'라 부르지 말고 '잡상'이라고 바르게 불러 보아요.

국립고궁박물관의 잡상

지식 맛집 Q&A

소설 서유기 삽화

잡상이 조선 시대 궁궐 지킴이가 된 이유는?

궁궐 지붕 위의 잡상은 잡귀를 쫓는 벽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소설 <서유기>에는 당나라 태종의 꿈속에 귀신이 기와를 던지며 괴롭히자, 군사들에게 궁궐을 지키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잡상의 모티프를 따 왔다고 해요. 따라서 잡상은 천지를 떠도는 귀신이나 잡신을 잡아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방어하는 일종의 군사들인 셈이지요.

참고 자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48208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요

슈퍼파워 곤충 히어로

내가 그린 '폭탄먼지벌레'는
위험을 느끼면 100°C가 넘는
불 방귀를 뿜는 초능력이 있어.

곤충 그리기
난이도 ●●○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몸무게의 850배를 가뿐히 들 힘을 가지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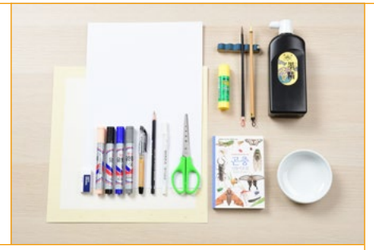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곤충들은 저마다 살아남기 위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여름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는 1초에 무려 250~500회에 이르는 날갯짓을 하며 방향과 속도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죠. 내가 알고 있는 곤충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곤충의 특징을 모방하여 멋진 능력을 가진 히어로를 상상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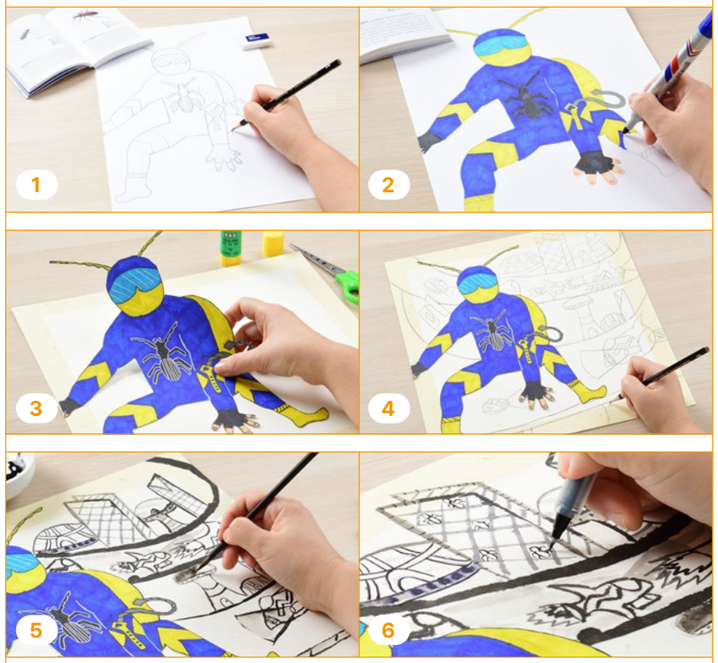
이렇게 해요

잠깐만!
곤충을 관찰해서 스케치할 때는 곤충의 특징과 능력이 잘 드러나게 그려 주세요.

준비물

- 도화지, 두방지
- 먹물, 유성 매직
- 접시, 붓, 붓펜
- 곤충 사진 자료
- 풀, 가위 등





1 도화지에 곤충의 특징을 살린 히어로 그리기
2 곤충 히어로를 유성 매직으로 채색하고 오리기
3 ***두방지**에 곤충 히어로 붙이기
   두방지 얇은 화선지를 두꺼운 종이나 판에 붙인 액자 형태의 화판.
4 히어로와 어울리는 배경 밑그림 그리기
5 먹물의 농담을 살려 채색하기
6 붓펜을 이용해 세밀한 부분 표현하기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요

토종 곤충을 관찰하여 곤충 모양의 브로치를 디자인해 보세요.

지식 맛집 Q&A

림스키코르사코프 초상화

곤충이 주인공인 클래식 음악이 있다?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왕벌의 비행'이라는 곡은 벌이 주인공이에요. 이 곡은 원래 오페라 <술탄 황제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노래인데 벌떼가 백조를 공격하는 모습을 아주 빠른 음악으로 표현했지요. 곤충이 주인공인 또 다른 곡은 베토벤이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로 만든 '벼룩의 노래'랍니다. 통통 튀는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 벼룩이 톡톡 튀어 오르는 듯이 느껴지죠. 어때요, 음악을 들으니 곤충들의 움직임이 연상되지 않나요?

참고 자료: 벼룩의 노래 해설 https://www.himalaya.com/episode/350-47675773

도덕 교과서 속 이야기 탐색

살아 움직이는 브로치

멕시코에는 살아 있는 곤충을 보석으로 장식하고 곤충을 체인과 핀으로 고정한 전통 액세서리가 있어요. '마케치(maquech) 브로치'라고 하는데 마케치는 스페인어로 날개 없는 풍뎅이라는 뜻이에요. 마야 시대 전설에 따르면, 가족의 반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한 공주가 죽어서 풍뎅이로 환생하자 연인이 풍뎅이를 아름답게 치장한 후 가슴 근처에 매달고 다닌 것이 마케치 브로치의 시작이었다고 해요. 요즘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살아 있는 곤충 액세서리도 동물 학대로 논란이 되었어요. 동물과 곤충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생명을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의식이 개선되어야 할 거 같아요.

참고 자료: https://yucatantoday.com/leyendas-mayas-la-princesa-y-el-escarabajo/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요

인간에게 이로운 곤충인 꿀벌로 히어로를 만들었어요.
꿀벌 히어로의 머리카락은 알록달록 예쁜 꽃의 색을 본 따 무지갯빛으로 색칠하고,
배경에 히어로가 하는 일들을 그려 주었어요.

예전엔 곤충이 징그럽다고 생각했었는데,
나만의 곤충 히어로를 만들다 보니
곤충마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호기심이 생겼어요.